

# 시민운동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민운동

계몽적 전위 모델의 인식론적 해체와 플랫폼형 시민운동의 모색

차성수

2026

## 시민운동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민운동

— 계몽적 전위 모델의 인식론적 해체와 플랫폼형 시민운동의 모색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 시민운동이 직면한 위기가 단순한 도덕적 해이나 조직력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 자체를 가능하게 했던 인식론적·존재론적 기반의 붕괴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1980년대 혁명적 운동론에서 1990년대 신사회운동론으로의 전환은 방법론적 수준에 머물렀을 뿐, 이상적 진리를 사전에 설정하고 대중을 그 방향으로 계몽·동원하는 '수목적(樹木的) 계몽 모델'의 본질적 구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니체의 관점주의(perspectivism)와 들뢰즈·가타리의 리좀(rhizome) 존재론을 이론적 준거로 삼아 이 구조를 비판하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사례를 통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역설적 위기의 내적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활동가가 전위(前衛)가 아닌 촉진자(facilitator)로 기능하는 '플랫폼형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와 대만의 vTaiwan 사례를 통해 탐색하며, 새로운 시대의 시민운동론을 위한 철학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시민운동, 계몽적 전위 모델, 니체, 관점주의, 들뢰즈, 리좀, 플랫폼형 시민운동, 신사회운동론, 총선시민연대, 빠띠

---

## Abstract

This paper argues that the crisis facing Korean civil society movements stems not from mere moral failures or organizational weaknesses, but from the collapse of the epistemological and ontological foundations upon which those movements rested. The transition from the revolutionary movement theory of the 1980s to the new social movement theory of the 1990s represented only a methodological shift;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what this paper terms the “arborescent enlightenment model”—wherein an ideal truth is predetermined and the public mobilized toward it—remained intact. Drawing on Nietzsche’s perspectivism and Deleuze and Guattari’s rhizomatic ontology as theoretical references,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is structure and analyzes the internal dynamics of the “civil movement without citizens” paradox through the case of the 2000 Citizens’ Solidarity for General Elections. On this basis, the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platform-type civil movement” in which activists function not as vanguards but as facilitators, drawing on the cases of the Social Cooperative Parti and Taiwan’s vTaiwan project, and proposes philosoph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a new theory of civil society movements.

**Keywords:** Civil Society Movement, Enlightenment Vanguard Model, Nietzsche, Perspectivism, Deleuze, Rhizome, Platform-Type Civil Movement, New Social Movement Theory, Citizens’ Solidarity for General Elections, Parti

---

## I. 문제 제기: '정답'의 시대가 저물고 '질문'의 시대가 도래하다

### 1. 거대서사의 종언과 시민운동의 위기

한국의 시민운동은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회원 수의 감소, 재정적 취약성, 사회적 영향력의 퇴조는 이미 오래된 진단이지만, 그 처방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통상적인 진단은 활동가들의 도덕적 해이, 열정의 소진, 혹은 시민들의 공익적 무관심을 지목한다. 그러나 이 글은 그러한 진단이 문제의 표면만을 긁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운동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운동을 지탱해온 인식론적·존재론적 기반, 즉 운동이 서 있는 철학적 토대 자체의 붕괴에 있다.

한국 시민운동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 형성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1980년대 혁명적 변혁운동의 시기다. 이 시기의 운동은 역사적 필연성과 민중의 객관적 이익이라는 강고한 형이상학적 전제 위에 구축되었다. 운동의 전위(前衛), 즉 혁명적 주체는 역사의 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을 아직 의식화하지 못한 대중에게 전달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전위주의적 운동론이 지배적이었다. 진리는 이미 주어져 있었고, 운동은 그 진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였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이 혁명적 패러다임은 점차 균열을 드러냈다. 1991년 소련의 붕괴는 그 이념적 준거를 결정적으로 해체했고, 한국 사회는 새로운 운동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때 서구로부터 수입된 것이 신사회운동론(new social movement theory)이다.<sup>1</sup> 계급투쟁 대신 삶의 질, 평화, 생태, 여성, 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의제가 전면에서 등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989)과 참여연대(1994)로 대표되는 전문 시민단체들이 급속히 성장하며 한국 시민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sup>2</sup>

그러나 이 전환에 내포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신사회운동론은 방법론적 차원에서는 분명히 혁명적 운동론과 차별화되었지만, 그 인식론적 구조—즉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이성적 주체가 의제를 설정하고, 시민들을 그 방향으로 이끈다는 계몽적 구조—는 여전히 온존하였다. 장식이 바뀌었을 뿐 건물의 뼈대는 그대로였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본 논문은 '수목적(樹木的) 계몽 모델'이라고 명명한다.

## 2. 시대정신의 전환: 일원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문제는 이 수목적 계몽 모델을 받쳐주던 시대적 조건 자체가 변화했다는 데 있다.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일원주의(monism)에서 다원주의(pluralism)로, 보편적 객관 진리에서 관점주의적 진리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단일한 의제 설정권자의 독점을 해체하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경쟁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거대서사(grand narrative)가 해체되고, 작은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다.

이 변화는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가 『포스트모던의 조건』(1979)에서 예견한 것이기도 하다. 리오타르는 메타서사(meta-narrative)—해방, 진보,

---

<sup>1</sup> 임희섭,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나남, 1999), 23-45 쪽.

<sup>2</sup> 조대엽, 『한국의 시민운동: 저항과 참여의 동학』(나남, 1999), 87-120 쪽.

계몽 등의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이 포스트모던 조건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sup>3</sup> 이제 단일한 진리가 아니라 복수의 언어게임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하나의 보편적 진리를 설정하고 대중을 그것으로 향도한다는 시민운동의 자기 이해는 근본적 도전에 직면한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운동 진영은 이 철학적 지각변동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 의제와 전술이 변화했어도, '우리가 옳다'는 인식론적 독단론은 완강하게 유지되었다. 이것이 바로 시민운동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자기모순의 덫에 빠진 이유이며, 이 글이 해명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다.

---

## Ⅱ. 철학적 배경: 니체의 망치와 들뢰즈의 지도

### 1. 니체의 관점주의와 보편 진리의 해체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철학적 작업을 수행했다. “신은 죽었다(Gott ist tot)”는 선언은 단순한 무신론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서구 문명이 의지해온 모든 형태의 초월적·보편적 진리의 사망 선고다.<sup>4</sup> 니체에게 신의 죽음이란 플라톤주의적 이데아 세계, 즉 감각적 현상계 너머에 진리·선·미의 원형이 존재한다는 믿음 체계 전체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광범위하다. 역사적 필연성, 민중의 객관적 이익, 사회 진보의 방향 같은 개념들도 모두 이러한 형이상학적 전제 위에 구축된 '우상'들이다.

니체의 관점주의(perspectivism)는 이 해체 작업 위에서 전개된다. 관점주의의 핵심 테제는 이 세상에 보편적·객관적·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는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변화하는 생성의 세계이며, 우리는 각자의 관점에서만 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

---

<sup>3</sup> Jean-François Lyotard, *La condition postmoderne*(Paris: Minuit, 1979); 국역, 유정완 외 역, 『포스트모던의 조건』(민음사, 1992), 7-8 쪽.

<sup>4</sup> Friedrich Nietzsche, *Die fröhliche Wissenschaft*(1882), §125; 국역, 안성찬·홍사현 역, 『즐거운 학문』(책세상, 2002), 179-181 쪽.

“사실은 없다, 해석만 있을 뿐이다(Es gibt keine Tatsachen, nur Interpretationen)”는 니체의 명제는 이러한 인식론적 입장을 압축한다.<sup>5</sup>

이를 시민운동에 적용하면 어떤 함의가 도출되는가? 우선, '우리가 옳기 때문에 실현해야 한다'는 전위주의적 논리는 그 토대를 상실한다. 시민운동이 표방하는 이상적 사회의 상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관점이다. 물론 그것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니체는 절대적 진리의 부재를 허무주의로 귀결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절대적 진리의 부재를 견디며 서로 다른 관점들이 치열하게 경합하고 대화하는 세계를 긍정하라고 요청한다.<sup>6</sup> 이것은 '틀렸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다른 관점의 타자와 대화하고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는 논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시민운동에 있어 니체적 전환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실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진 타자와 대화하고 합의해야 한다. 운동의 목적은 진리의 관철이 아니라 이견들 사이의 민주적 합의 과정 그 자체다.

## 2. 들뢰즈·가타리의 차이와 생성의 존재론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는 차이(différence)와 생성(devenir)의 존재론을 통해 니체의 문제의식을 더욱 급진적으로 전개한다. 들뢰즈는 서양 형이상학이 동일성(identité)의 철학, 즉 세계를 고정된 본질과 범주들의 체계로 파악하는 사유를 지배적으로 만들어왔다고 비판한다. 이에 맞서 그는 우열이 없는 차이들의 세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성의 과정으로서 세계를 파악한다.<sup>7</sup>

---

<sup>5</sup> Friedrich Nietzsche, *Nachgelassene Fragmente*, KSA 12, 7[60]; 관점주의에 관한 체계적 해설로는 Maudemarie Clark, *Nietzsche on Truth and Philosophy*(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127-158 쪽 참조.

<sup>6</sup> Friedrich Nietzsche, *Jenseits von Gut und Böse*(1886), §34; 국역, 김정현 역,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책세상, 2000), 66-68 쪽.

<sup>7</sup> Gilles Deleuze, *Différence et répétition*(Paris: PUF, 1968); 국역,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민음사, 2004), 19-65 쪽.

이 존재론의 가장 명료한 표현이 들뢰즈·가타리가 『천 개의 고원』(Mille Plateaux, 1980)에서 제시한 수목(arbre) 모델과 리좀(rhizome) 모델의 대비다. 수목 모델은 하나의 뿌리에서 줄기가 뻗어나가고 가지들이 위계적으로 분기하는 나무의 구조다. 이것은 하나의 중심(뿌리)이 전체를 조직하는 위계적·중심집권적 사유 구조를 표상한다. 반면 리좀은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어디에서도 끊어지고 접속되는 지하 뿌리줄기다. 리좀에는 시작도 끝도, 중심도 위계도 없다. 차이의 개체들이 배치(agencement)를 이루며 우발적으로 연결되고, 그 연결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생성된다.<sup>8</sup>

들뢰즈는 또한 ‘기관 없는 신체(Corps sans Organes, CsO)’ 개념을 통해 어떤 고정된 기능과 목적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잠재적 강도(intensity)의 장(場)을 묘사한다.<sup>9</sup> 이 개념은 조직이나 운동이 사전에 규정된 목적론적 구조에 포획되는 것에 저항한다. 기관 없는 신체로서의 운동은 어떤 고정된 이상을 향해 자신을 조직하는 대신, 다양한 접속과 이탈의 흐름 속에서 매번 새롭게 자신을 생성한다.

이를 시민운동론에 번역하면, 운동의 목적점은 미리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개체들—다양한 시민들, 다양한 의제들,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연결 속에서 생성되어 가는 것이다. 진리와 정답은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들의 우연한 사건적 연결 속에서 꾸준히 만들어진다. 이것이 들뢰즈적 의미에서의 ‘지도 그리기(cartographie)’다. 지도는 등사판 복사(calque)와 다르다. 복사는 이미 존재하는 원본을 재현하는 것이지만, 지도는 항상 새로운 영토를 창조한다.<sup>10</sup>

---

<sup>8</sup> 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Mille Plateaux*(Paris: Minuit, 1980), pp. 9-37; 국역, 김재인 역, 『천 개의 고원』(새물결, 2001), 7-58 쪽.

<sup>9</sup> Ibid., pp. 165-197; 국역, 270-320 쪽.

<sup>10</sup> Deleuze & Guattari, *Mille Plateaux*, p. 20; 국역, 25 쪽. “지도는 복사물이 아니다. ... 지도는 열려 있다. 모든 차원에서 연결 가능하고, 분리 가능하고, 뒤집을 수 있고, 끊임없는 변용에 열려 있다.”

### Ⅲ.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적 검토: 수목적 계몽 모델의 성과와 한계

#### 1. 민주화 이전: 혁명적 변혁운동의 전위주의

한국의 근현대 사회운동은 일제강점기의 민족해방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시기 YMCA 를 비롯한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들은 민족계몽과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sup>11</sup> 이들 운동의 특징 역시 선각자적 엘리트가 ‘깨어나지 못한’ 대중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는 계몽적 구조를 공유하고 있었다.

1960 년대 이후 박정희 체제하에서의 저항운동과 1980 년대 민주화운동은 더욱 강고한 전위주의적 구조를 갖추었다. 운동의 핵심은 ‘민중’의 객관적 이익을 인식하고 대변하는 혁명적 지식인과 학생 전위 집단이었다. 이 시기의 운동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전위당론의 영향 아래, 민중을 역사 변혁의 주체로 설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주체를 대리·대행하는 구조를 취했다.

이 운동들은 민주화라는 역사적 과제에 있어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다. 1987 년 6 월 항쟁은 그 결정적 결실이었다. 그러나 이 성공의 이면에는 하나의 역설이 잠복하고 있었다. 운동의 목적이 달성될수록 운동의 존재 근거는 약화된다. 민주주의가 제도화되면서 혁명적 운동론의 공간은 협소해졌고, 운동은 자신을 재정의할 필요에 직면했다.

#### 2. 1990 년대 신사회운동론의 수용과 그 한계

1990 년대 한국 시민사회는 신사회운동론을 새로운 운동 패러다임으로 적극 수용했다. 1989 년 경실련의 창립과 1994 년 참여연대의 출범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도적 표현이었다. 이들 단체는 특정 계급의 이익 대신 보편적 시민 이익을, 혁명적 변혁 대신 점진적 제도 개혁을 표방했다.<sup>12</sup>

---

<sup>11</sup>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종로서적, 1986), 234-267 쪽; 서울 YMCA, 『서울 YMCA 운동 100 년사, 1903~2003』(서울 YMCA, 2004), 45-89 쪽.

<sup>12</sup> 조대엽, 앞의 책, 145-178 쪽; 강정인,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36 권 1 호(2002), 50-55 쪽.

신사회운동론은 서구에서는 기존의 계급 중심 노동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맥락에서 등장했다. 알랭 투렌(Alain Touraine),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클라우스 오페(Claus Offe) 등이 이론적으로 기여한 이 흐름은 탈물질적 가치, 정체성, 삶의 방식, 문화 등을 운동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sup>13</sup> 평화운동, 생태운동, 여성운동, 소수자 운동 등이 이 흐름을 구성한다.

한국에서 신사회운동론의 수용은 분명히 운동의 지평을 넓혔다. 그러나 이 수용 과정에서 신사회운동론의 가장 급진적인 함의—즉 운동 목적의 사전 설정에 대한 회의, 참여 과정 자체의 중시—는 충분히 소화되지 못했다.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의제만 바뀌었을 뿐, 전문가 집단이 시민을 대신하여 ‘올바른’ 의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수목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다.<sup>14</sup>

이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서구와 달리 풀뿌리 회원 조직보다 전문 활동가 중심의 ‘스텝 조직’으로 발전했다. 재정은 소수의 고액 후원자나 정부 보조금에 의존했고, 의사결정은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 집중되었다. 시민은 가끔 서명에 동참하거나 후원금을 내는 수동적 존재로 남았다. 이것이 바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자기비판적 성찰이 1990년대 후반부터 시민운동 진영 내부에서 제기된 배경이다.<sup>15</sup>

### 3.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절정의 역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412개 시민단체가 결집하여 결성한 총선시민연대와 그 낙선운동은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다.<sup>16</sup> 시민연대는 부패하고

---

<sup>13</sup> Alberto Melucci, *Nomads of the Present: Social Movements and Individual Needs in Contemporary Society*(Temple University Press, 1989), pp. 20-43; Alain Touraine, *The Voice and the Ey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 77-103.

<sup>14</sup> 신진욱, 「민주화 이후 시민운동의 성장과 위기: 제도적 전문주의와 성공의 역설」, 『시민사회와 NGO』 9권 2호(2011), 10-18쪽.

<sup>15</sup> 참여연대, 「시민운동에 대한 직격비판」, 『월간참여사회』(2001);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운동원리』(경기시민사회 아카이브, 2003), 12쪽.

<sup>16</sup> 총선시민연대, 「2000년 총선시민연대 결성 선언문」(2000. 1. 2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총선시민연대” 항목.

무능한 현역 정치인에 대한 공천 반대 및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에게 낙선 투표를 호소했다. 그 결과는 상당한 수준의 성공이었다. 낙선 대상자 86 명 중 59 명이 실제로 낙선함으로써 시민운동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sup>17</sup>

그러나 바로 이 성공이 역설적으로 시민운동의 위기를 가속화했다. 낙선운동은 수목적 계몽 모델이 거둔 최대의 승리이자, 동시에 그 모델의 구조적 한계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첫째, 낙선운동의 의제와 명단은 소수의 전문 활동가 집단이 설정하고 결정했다. 412 개 단체의 결집은 인상적이었지만, 실제 의사결정은 소수의 핵심 단체와 전문가들에게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은 동원의 대상이었지, 결정의 주체가 아니었다. 낙선 대상 선정 기준과 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일부 정치 세력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sup>18</sup>

둘째, 낙선운동은 시민운동이 사실상 정치 세력화의 경계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사회와 정치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고 특정 정치 노선의 대행자가 되어간다는 비판이 거세졌다.<sup>19</sup> 이는 이후 참여정부(2003~2008) 시기 시민운동 진영의 일부가 권력에 편입되면서 더욱 심화되는 ‘권력과의 거리두기’ 실패 문제의 전조였다.

셋째, 그리고 가장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낙선운동이 민주주의의 내용을 시민들이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올바른 민주주의를 ‘대리 실현’하는 방식을

---

<sup>17</sup> 손혁재, 「2000 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과 시민민주주의」, 『동향과 전망』 45 호(2000), 9-15 쪽; 참여연대, 「2000 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유권자들과 함께 만들어 낸 선거혁명」(2014), [peoplepower21.org](http://peoplepower21.org).

<sup>18</sup> 연합뉴스, 「총선연대 활동의 성과와 한계」(2000. 4. 13); 김호기, 「2000 년 총선과 시민운동: 성과와 한계」, 『경제와 사회』 50 호(2001), 18-24 쪽.

<sup>19</sup>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02), 178-210 쪽.

취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수목적 계몽 모델의 정점이었다. 시민운동은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모순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냈다.

낙선운동 이후 한국 시민운동은 지속적인 내리막을 걷는다. 2000년대 초반 일부 시민운동 지도자들의 정치권 진출, 권력과의 밀착 관계, 재정 스캔들 등이 연이어 시민운동의 신뢰를 잠식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반 MB 운동, 2016~17년 촛불운동은 시민운동의 역량을 일시적으로 증명했지만, 이 역시 기존의 계몽적 동원 구조를 반복한 것이었다.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잠복해 있었다.

---

## IV. 새로운 시민운동론의 모색

### 1. 대안을 향한 실천적 사례들

#### 1)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더 민주적인 세상을 만드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을 표방하며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시민들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공론장 모델을 구축해왔다.<sup>20</sup> 빠띠의 핵심 철학은 ‘시민이 운영하고, 시민이 소유하는’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의제를 설정하고 시민들을 동원하는 기존의 수목적 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빠띠는 캠페인즈(Campaigns.do), 타운홀(Townhall), 스페이스(Space) 등의 플랫폼 도구를 통해 누구나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고, 투표하며, 집합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sup>21</sup> 여기서 활동가의 역할은 의제를 설정하는 전위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과정을 설계하고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다.

---

<sup>20</sup> 권오현,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8), 3 쪽.

<sup>21</sup>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시민 활동 플랫폼, 빠띠」, 국회 토론회 자료(2024), ksenet.org.

빠띠의 플랫폼 협동조합 모델은 기술 기업이 플랫폼을 소유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에도 도전한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시민 공공재로 구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술적 기반 자체를 민주화하려는 시도다.<sup>22</sup> 이는 들뢰즈적 의미에서 리좀적 접속의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2) 대만의 vTaiwan 프로젝트: 속의 민주주의의 디지털 실험

대만의 vTaiwan 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가장 주목할 만한 국제 사례 중 하나다. vTaiwan 은 정부가 특정 정책 의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온라인 공론화 플랫폼으로, AI 기반 의견 분석 도구인 Pol.is 와 연계하여 운영된다.<sup>23</sup>

vTaiwan 의 핵심 설계 원리는 찬반 대립을 넘어 의견 집단들 사이의 공통 기반(common ground)을 발굴하는 것이다. Pol.is 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군집 분석하여 서로 다른 의견 집단들이 어디서 일치하고 어디서 갈리는지를 가시화한다. 이를 통해 논쟁을 격화시키는 대신 합의 가능한 지점을 찾아가는 속의(deliberation)가 가능해진다.<sup>24</sup>

오드리 탕(Audrey Tang) 전 대만 디지털부 장관 체제하에서 vTaiwan 은 우버(Uber) 규제, 주류 온라인 판매 등 첨예한 정책 갈등을 성공적으로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과정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결론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취했다.<sup>25</sup> 이것은 '정답은 이미 있다'는 계몽 모델에서 '정답은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성 모델로의 전환을 실천한 사례다.

---

<sup>22</sup>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공식 소개(coop.parti.xyz, 2024 년 접속).

<sup>23</sup> vTaiwan Project, *vTaiwan: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the Digital Age*(info.vtaiwan.tw, 2023); 오드리 탕의 실험에 관한 분석으로는 Audrey Tang, "Digital Democracy with Audrey Tang," *Journal of Democracy*, 30(3)(2019), pp. 69-73.

<sup>24</sup> planet03.com, 「기획: AI 와 민주주의 - Decidim 과 vTaiwan,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실험」(2025. 6. 5); klog.or.kr, 「플랫폼 갈등관리 사례를 통해 살펴본 성공적 갈등해결에 관한 연구」, 19-28 쪽.

<sup>25</sup> 논객닷컴, 「한국 정치, 새판짜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2025. 9. 12).

### 3) 디지털 시민운동의 새로운 가능성

빠띠와 vTaiwan 외에도, 201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들이 등장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당원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한 사례, 아이슬란드의 크라우드소싱 헌법 개정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이나 각종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들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의제 설정권이 분산되어 있다.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를 소수의 전문가가 결정하지 않고, 다수의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다. 둘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의사결정의 전 과정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셋째, 활동가는 운동의 목적지를 설정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과정을 설계하고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로 역할이 재정의된다. 이 세 가지 특징은 모두 수목적 계몽 모델에서 리좀적 생성 모델로의 전환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 2. 플랫폼형 시민운동론의 이론적 구성

위의 사례들을 토대로, 이 글은 새로운 시민운동의 패러다임으로 '플랫폼형 시민운동(platform-type civil movement)'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존재 방식과 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론적·존재론적 전환을 함의한다.

**첫째, 운동 목적의 탈사전화(脫事前化).** 플랫폼형 시민운동은 운동의 목적을 사전에 고정하지 않는다. 들뢰즈·가타리의 언어로 말하자면, 목적지를 먼저 설정하고 등사판으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개체들이 접속하는 과정 속에서 지도를 함께 그려가는 것이다. 이것은 목적 없는 운동이 아니다. 오히려 과정 속에서 목적이 더욱 풍부하게 생성된다는 주장이다.

**둘째, 활동가 역할의 전환: 전위에서 촉진자로.** 플랫폼형 시민운동에서 활동가는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전위(vanguard)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들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과정을 설계하는 촉진자(facilitator)다. 이 역할 전환은 단순한 전술 변경이 아니다. 활동가 자신이 자기 관점의 관점성(perspectivity)을 인정하고, 타자의 관점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함께 답을 찾아가겠다는 존재론적 겸손의 표현이다.

**셋째, 의제 설정권의 민주화.** 기존 시민운동에서 의제 설정은 전문 활동가나 지식인 집단의 독점적 권한이었다. 플랫폼형 시민운동은 이 독점을 해체하고, 누구나 의제를 제안하고 그 중요성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만든다. 이는 니체적 의미에서 다양한 관점들의 경합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넷째, 합의 과정의 투명화와 민주화.** 플랫폼형 시민운동은 결론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어떤 합의에 도달했는지만큼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 그 합의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하다. 과정의 투명화와 참여의 개방성이 운동의 정당성 기반이 된다.

### 3. 우려와 반론에 대한 응답

플랫폼형 시민운동론은 몇 가지 정당한 우려와 반론에 직면한다. 이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서는 논의의 완결성을 확보할 수 없다.

**첫 번째 우려: 파편화와 포퓰리즘의 위험.** 의제 설정권이 분산되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경쟁하게 되면, 운동이 파편화된 개인들의 무질서한 아우성으로 전락하거나, 실질적 공익보다 감정적 반응에 호소하는 포퓰리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 위험은 플랫폼형 시민운동의 포기 이유가 아니라, 숙의적 과정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vTaiwan의 Pol.is 모델이 보여주듯,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여론 집산이 아니라 이견들 사이의 공통 기반을 발굴하는 숙의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려: 극단적 상대주의의 문제.**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관점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면, 인권침해, 차별, 폭력을 정당화하는 관점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하는가? 이 반론은 관점주의를 nihilism이나 극단적 상대주의와 동일시하는 오독에서 비롯된다. 니체의 관점주의는 모든 가치가 동등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관점들의 치열한 경합 속에서 더 강하고 더 생명력 있는 가치가 부상한다고 본다. 플랫폼형 시민운동 역시 합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가치가 사전에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내부로부터 생성된다는 점이 다르다.

**세 번째 우려: 구조적 권력 불평등의 무시.** 디지털 플랫폼이 아무리 개방적으로 설계되어 있어도, 참여의 실질적 조건은 디지털 리터러시, 시간적 여유, 경제적 자원 등에 의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플랫폼형 시민운동이 이 구조적 불평등을 외면하면, 결국 목소리 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형태의 엘리트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 이 우려는 플랫폼형 시민운동이 참여의 조건 자체를 민주화하는 별도의 노력—디지털 접근권 보장, 참여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V. 결론: 겸손하고 급진적인 제안

이 글은 한국 시민운동의 위기가 인식론적·존재론적 기반의 붕괴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에서 출발했다. 1980 년대의 혁명적 전위주의에서 1990 년대의 신사회운동론으로의 전환은 방법론적 변화에 머물렀을 뿐, '정답은 이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수목적 계몽 모델의 인식론적 구조는 지속되었다. 2000 년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은 이 모델의 절정이자 그 한계의 선명한 노출이었다.

니체의 관점주의와 들뢰즈·가타리의 리즘 존재론은 이 위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철학적 자원을 제공한다. 절대적 진리의 부재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관점들의 대화와 경합을 통해 공동의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운동의 핵심으로 삼는 것, 이것이 새로운 시민운동의 존재 방식이다.

이를 '겸손하고도 급진적인 제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정답은 이미 있다'는 오만과 결별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자'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겸손하다. 그러나 이 겸손은 단순한 소극성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재사유하고, 운동의 존재 방식을 존재론적 수준에서 전환하자는 급진적 요청이기도 하다.

빠띠와 vTaiwan 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전환은 이미 실천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활동가가 전위에서 촉진자로, 조직이 계층적 나무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로, 목적이 사전 설정에서 과정 속 생성으로 변화하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방향이다.

한국의 시민운동 진영이 이 전환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조직적 쇠퇴가 아니라 역사적 역할의 소진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이 전환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운동 모델을 실험한다면, 시민운동은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다원적 현실 속에서 새로운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시대정신이 바뀌었다. 이제는 운동의 정신도 바뀌어야 할 때다.

---

## 참고문헌

- 강정인. (2002).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시민운동의 성과와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36(1), 43-65.
- 권오현. (2018).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 Future Strategy』, 22968.
- 김동춘. (2006).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와 특성」. 『시민과 세계』, 9, 17-34.
- 김호기. (2001). 「2000 년 총선과 시민운동: 성과와 한계」. 『경제와 사회』, 50, 6-28.
- 들리즈, 질·가타리, 펠릭스. (2001).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원저 1980 년 출판)
- 들리즈, 질. (2004).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원저 1968 년 출판)
- 리오타르, 장 프랑수아. (1992). 『포스트모던의 조건』. 유정완·이삼출·민승기 역. 민음사. (원저 1979 년 출판)
- 박상필. (2002). 『NGO 와 현대사회』. 아르케.
- 박원순. (1999). 『NGO: 희망의 새로운 패러다임』. 굿인포메이션.
- 손혁재. (2000). 「2000 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과 시민민주주의」. 『동향과 전망』, 45, 9-38.
- 신진욱. (2011). 「민주화 이후 시민운동의 성장과 위기: 제도적 전문주의와 성공의 역설」. 『시민사회와 NGO』, 9(2), 3-43.
- 유팔무·김정훈. (199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 이시재. (1992). 「90 년대 한국사회와 사회운동의 방향」.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 임희섭. (1999).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나남.
- 정상호. (2007). 「한국 시민운동의 성장과 위기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와 NGO』, 5(2), 5-41.
- 조대엽. (1999). 『한국의 시민운동: 저항과 참여의 동학』. 나남.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하버마스, 위르겐. (2006). 『의사소통행위이론 1, 2』. 장춘익 역. 나남. (원저 1981 년 출판)
- 니체, 프리드리히. (2002). 『즐거운 학문』. 안성찬·홍사현 역. 책세상. (원저 1882 년 출판)
- 니체, 프리드리히. (2000).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김정현 역. 책세상. (원저 1886, 1887 년 출판)
- Della Porta, D., & Diani, M. (2006). *Social Movements: An Introduction* (2nd ed.). Blackwell.
- Habermas, J.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Suhrkamp.
- Melucci, A. (1989). *Nomads of the Present: Social Movements and Individual Needs in Contemporary Society*. Temple University Press.
- Nietzsche, F. (1968). *The Will to Power*. Trans. Walter Kaufmann & R. J. Hollingdale. Vintage.
- Touraine, A. (1981). *The Voice and the Eye: An Analysis of Social Movem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g, A. (2019). “Digital Democracy with Audrey Tang.” *Journal of Democracy*, 30(3), 69-73.
- vTaiwan Project. (2023). *vTaiwan: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the Digital Age*. Retrieved from <https://info.vtaiwan.tw/>
-